

2023. 9. 12. (월) 10:00

북구의회 본회의장

- 제2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

구청질문 답변서

구분	질문내용
제목	인구소멸에 대한 북구의 대응 방안에 관하여 [박재완 의원]
질문1	과대·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동안의 추진경과와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2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현실화 하기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실행연도, 실행방안,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3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노력, 추진경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구청장님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



울산광역시 북구

먼저, 우리 북구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희 의장님과 이선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우리구에서는 신규 학교 설립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수시로 교육청에 건의하고 답변 요구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새로 취임한 신임 교육감에게도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 중인 제2 약수초와 제2 효문초등학교가
예정대로 정상 개교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송정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중산초 과대 문제는 2025년도 제2약수초 신설로
해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2025년도 제2효문초 신설로
율동지구 학교문제 또한 해소될 것입니다.

농소중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증·개축을 추진 중에 있고,
농소중학교 사업완료 후 (구)호계중학교에
호계고 학급 증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답변에 따르면,
교육부 기준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학급 증설 및 학생분산 배치 등으로
2026년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향후 신설 요인 발생 시,
신규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재완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우리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과대·과밀 문제해소와
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 1 답변 완료)

(※ 질문 2 질의)

2.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협력업체의 산업 전환을 촉진하여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산업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핵심으로 하여

울산시와 공조하여 다음과 같이

미래차 전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울산은 미래 모빌리티 핵심인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으며

8월 24일 울산시와

미래차 핵심 부품 소재업체인 나노팀은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신규 인력 채용 시 울산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하고,

직원의 울산 주소 이전도 적극 권장키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지역 내 2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차 전기차 울산공장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된 울산 전기차 공장은
68만5800㎡ 규모로 총 2조2879억원이 투자돼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로 고용규모는 약 2,000여명정도 예상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부품사 기술전환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으로
2022년부터 자동차부품산업 이직자, 전직자,
퇴직자를 대상으로 11개사 17명에게
9천 4백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였고
2023년 현재 9개사 27명에게 1억 6,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정비인력양성, 자동차 시트 봉제사업,
자동차 튜닝 사업 등을 2013년부터 시행하여
총사업비 32억 1,100만원을 투입하여
교육 485명, 수료 422명, 취업 332명을
구인·구직 매칭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복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관광·유통·쇼핑·서비스 등 부가가치가 높고
여성과 청년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신(新)산업을 집중육성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이고 생동감 있는 복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 2 답변 완료)

(※ 질문 3 질의)

3.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의료원은 2020년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체제의 확립과
공공의료체제의 강화라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2021년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와 함께
에타면제를 추진하였으나 불발되었으며,

이후 시(市)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기획재정부로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하여,

2022년 1월부터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 4개월의 검토결과,

울산의료원은 편익 대비 비용 B/C가 0.65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전문가 평가결과
0.486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市)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추진방향을 재설정 하여
울산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향후 시(市)의 대응방향에 맞추어
주민들이 열망하는 울산의료원이
해당부지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저 또한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